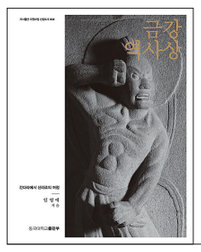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故한석홍 선생이 촬영한 석굴암 금강역사상들. 사진 왼쪽이 좌측 금강역사상, 사진 오른쪽이 우측 금강역사상이다.

간다라부터 신라까지 '금강역사상' 변천 망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
임영애 지음
동국대 출판부
2만5000원

금강역사상 변화사 일목요연 정리
헤라클레스 닮은 간다라 금강역사
붓다 수호임무 맡은 호위신장 역할
동아시아선 2구 조성, 수문장 의미
신라에선 친근한 모습으로 '현지화'

붉으락푸르락 몹시 화가 난 얼굴에 울퉁불퉁 근육질 몸매. 당장이라도 뛰어 나가 삿된 무리를 무찌를 것 같은 역동적인 조형. 경주 석굴암 금강역사상은 본존불과 함께 가장 눈길을 끄는 도상으로 손꼽힌다.

고대 불교조각 전문학자인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에게 금강역사상은 유독 끌리는 도상이다. 석굴암의 금강역사상을 마주한 순간부터 "그냥 좋았다"는 임 교수는 "불끈 쥔 주먹을 허공에 띄워 관자놀이 대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한다.

오랜 시간 금강역사상을 애정을 갖고 연구했던 임 교수가 최근 발간한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은 간다라에서 중앙아시아, 중국과 한반도까지의 금강역사상을 총망라한 연구서다.

이 연구서는 1~2세기 간다라부터 9세기 신라까지, 각 시기마다 또 지역마다 금강역사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학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금강역사의 모든 것을 담은 한 권의 책'이라 지칭할 만하다.

금강역사상 변천사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저자의 여정은 간다라 불교미술에서 시작된다. 초기 불교미술에서는 금강역사를 '바즈라파니(Vajirapani 伐折羅陀羅)'라고 부른다. '바즈라'는 금강저(金剛杵)를 의미하며, '파니'는 손안에 있다는 뜻이다. 바즈라파니를 한역해 집금강신(執金剛神) 또는 금강역사(金剛力士)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금강야차(金剛夜叉), 집금강야차(執金剛夜叉) 등으로 부르는데 야차는 호법신으로서 금강역사의 본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간다라 금강역사는 붓다를 중심으로 좌우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장신구는 걸치지 않았지만 헤라클레스를 닮거나 젊은 청년의 모습이거나 늙은이의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 간다라의 금강역사는 서양 고전 미술의 헤라클레스 도상을 차용했을까. 임 교수는 그 단초를 금강역사의 본성인 '야차'에서 찾는다.

인도에서 야차는 풍요와 재물을 담당한 귀신이었지만, 제석천에게 금강저를 넘겨받아 붓다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다. 임 교수는 "제석천에게 받은 금강저만으로도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외면적으로도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미 간다라 지역에 알려져 있던 서양 미술의 헤라클레스 도상을 떠올리는 일은 당시 간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다라 금강역사상의 공통점은 동아시아 금강역사상처럼 쌍이 아닌 한 구인 점, 또 붓다 바로 옆에서 붓다를 수호하는 모습이란 점이다. 간다라에서 금강역사의 주된 역할이 붓다를 수호하고 간다라 악룡인 아파랄라용왕을 퇴치하는 일이므로, 정확히는 붓다의 출가부터 열반의 순간까지만 등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중앙아시아의 금강역사는 갑옷을 입기도 하고 보살상처럼 머리에 관을 쓰거나 천의를 걸치기도 한다. 수호신으로서 위상이 더해진 것이다. 척박한 환경의 중앙아시아인들에게 현실적인 수호신으로서 경배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금강역사상은 크게 다른 면모를 보인다. 우선 쌍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금강역사가 서 있는 위치도 붓다의 옆이 아니라 문밖이다. 저자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금강역사상이 지켜야 할 영역이 훨씬 커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쌍으로 배치된 이유는 중국 고대의 좌우대칭 관념, 험악한 얼굴은 이인화가 극대화 된 호인의 이미지에서 찾았다.

신라시대 금강역사상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강렬한 모습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부에서 들여온 금강역사상이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단순한 수용 과정이 아니라 신라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모습이자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금강역사상이 외부에서 신라로 들어왔지만, 신라인들은 그 모습을 우리의 감성에 맞게 바꿨다"며 "금강역사상을 우리의 감성에 맞게 바꾸는 일은 단순한 수용과정이 아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없이 친숙하게 여길 것을 염두해 둔 배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임 교수의 저서는 동국대 출판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저서출판 지원사업'을 통해 발간됐다.

▲저자 **임영애 교수**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주대 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대 문화재학과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동국대 박물관장과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운영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서울시와 강원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역불교조각사〉, 〈교류로 본 한국불교조각〉 등 여러 권의 저서와 100여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했으며 석굴암에 대한 연구서를 준비 중이다.

조선 불교 지켜냈던 용성 조사 사상 조명



용성 사상 연구
진관 지음
운주사 / 2만원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이자 왜색불교로부터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선각자 용성 스님(1864~1940, 사진).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이자 독립운동가인 용성 스님의 사상과 불교실천운동을 당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책이 나왔다.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 스님이 최근 박사논문을 수정 보완해 펴낸 〈용성 사상 연구 · 백용성의 실천운동을 중심으로〉다.

앞서 용성 스님의 생애와 행적, 포교 활동 등의 다양한 연구는 이뤄졌지만 단행본 학술서가 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불교실천운동이라는 별도의 관점으로 용성 스님의 삶을 조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불교실천운동 관점으로 생애 조망
논문 아닌 단행본 학술서로는 처음

이 책은 조선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역사의 대변혁기, 혼란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 선구자 용성 스님의 삶과 사상, 활동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용성 스님은 선사뿐만 아니라 율사, 독립운동가, 경전 번역가, 불교저술가, 대중포교사, 불교개혁 운동가 등 수많은 호칭이 붙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다양하다. 무종단, 무교단의 상황에서 조선불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일생을 바쳐 노력했으며, 계율을 준수하는 비구승 중심의 교단을 확립하기 위해 힘썼다. 무엇보다 출가자와 교단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임제선을 핵심적인 수행 기조로 하는 전통교단을 확립하고자 진력했다. 다양한 수행활동을 기반으로 포교와 역경, 선농일치, 대각운동 등 불교실천운동에 매진해 근대불교사와 민족운동사에도 큰 자취를 남겼다.

책은 1장 서론을 시작으로 2장에서 용성 스님이 태어난 시기의 시대적 배경, 출가와 다양한 수행체험, 4차에 걸친 깨달음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일제 강점 후 조선불교계의 변화를 짚어보고, 그 속에서 용성 스님의 도심포교, 불교대중화, 대각사 창건, 임제선 선양, 금광경영 등과 독립운동가로서의 행보 등을 고찰한다. 4장에서는 용성의 불교실천과 대각운동을 살펴본다. 서대문감옥에서의 깨침 이후 역경과 출판을 통한 문서 포교, 선학원 건립과 선수행 결사, 대각교 창립과 대중선 운동, 건백서 제출과 만일참선결사회 창립, 해외 포교와 경제적 가립을 위한 활동 고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 5장은 대각사상 선양을 위한 활동, 일제의 간섭으로 대각교가 해산하고, 이로 인해 불교실천운동이 좌절되는 과정과 용성 스님의 열반, 남겨진 과제를 다뤘다.

저자 진관 스님은 "암울한 격변의 시대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과 조선불교, 민족을 위해 치열하고 투철하게 활동한 용성의 삶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는 데 있어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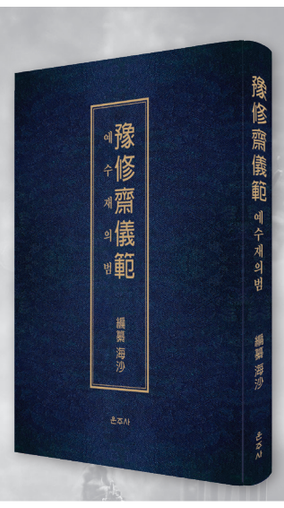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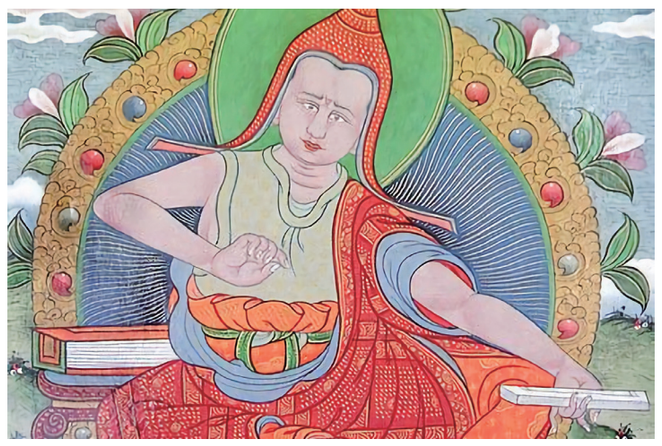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